■ 광주, 교수·의사 등 800여명 가출 10대 성매수 '충격'

"멍든 곳 약 발라주며 성관계"

모텔서 인터넷 채팅으로 상대 유인

감금사실 알고도 10번 찾은 남자도

가출한 여중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를 만났다가 악몽같은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모텔에 감금돼 폭행까지 당한 10대 소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광주지역 사회지도층 인사 70여 명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800여 명의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악몽의 6개월=광주가 고향인 A양은 부모의 이혼 후 학교(모 중학교 2년)를 그만두고 지난해 10월 가출했다. 가출 후 오갈 데가 없었던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진모(여·20)씨를 만났다. 진씨는 남자친구 김모(20)씨 등 3명을 더 끌어들여 A양을 광주 L모텔 등 4곳의 모텔에 번갈아 가며 감금했다.

이들은 모텔 옆방에 장기간 투숙한 뒤 돌아가며 A양을 감시하고, 도주를 막았다. 진씨 등은 A양이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거나 탈출하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담뱃불과 라이터 불로 손 등을 지졌다.

감시와 두려움 속에서 6개월간 시달렸던 A양은 지난달 22일 모텔을 빠져나와 전주에 있는 삼촌집으로 탈출했다. 진씨 일당은 전주로 A양을 잡으러 왔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성매매 어떻게 이뤄졌나?=진씨 등은 인터넷이 설치된 모텔 방에서 자신들의 계정으로 된 아이디(ID)를 이용했다. 국내 유명 포털 S사이트의 채팅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 만남' '매너 만남' 등의 글을 올려놓고 대상자를 유인한 것이다.

성 매수남들은 이후 A양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이들 중 일부는 A양이 감금당한 채 폭행까지 당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성매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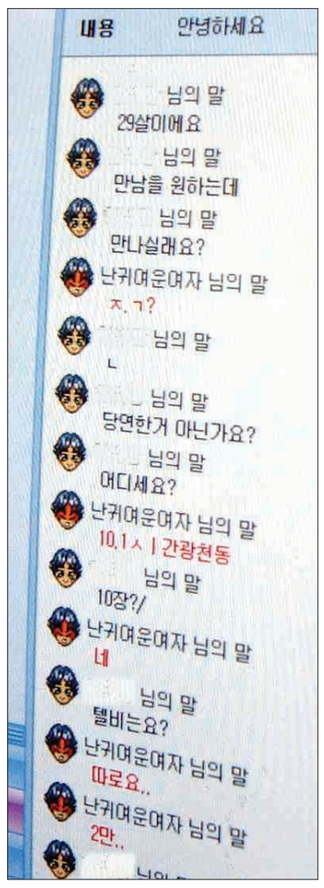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일부 성 매수자들에게 '성 관계를 강요받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들은 모른 척 했다"면서 "딸 같은 아이를 구해주지는 못할망정 10차례씩이나 성매수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양이 감금됐던 광주 L모텔 등 업주 4명도 조만간 소환,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지역 교수·의사·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성매매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A양이 자신이 감금당했던 광주의 한 모텔 방에서 수사관에게 인터넷 채팅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사진 왼쪽은 "탈출했다"는 이유로 담뱃불과 라이터로 폭행을 당해 화상(火傷) 흔적이 뚜렷이 남은 A양의 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양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 매수자와 나눈 채팅 기록. 만남 장소 및 시간·성 매매 가격·상대남의 나이 등이 나와 있다.

"6개월 간 하루 2~6번 강요당해"

경찰보호 A양 일문일답

현장 확인을 위해 4일 수사관들과 광주에 온 A양은 감금당했던 모텔의 위치나 호실 번호를 정확히 외우고 있었다.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강요받았나?

▲6개월 동안 단 하루만 쉬었고 보통 하루에 2~3번, 많을 때는 5~6번의 성 관계를 맺어야 했다. 한번에 10만원을 받았는데 일부 남성들은 1만~5만 원을 더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을 구속된 진씨 등에게 줬다.

-성 매수 남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의사와 약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교수와 대학생 등이 있었다. 이들은 모텔에서 돌아간 후에도 대부분 다시 전화가 왔고 10번 정도 찾아온 의사도 있었다. 광주에 온 오늘(4일)도 세 번 만난 대기업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감금돼 있는 동안 구조요청을 한 적이 있나?

▲"성 매매를 강요받고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2명에게 이야기했다. 그 중 한 명은 맞아서 멍든 곳에 약도 발라주고 감기약도 준 약사였다. 하지만 "나도 걸린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모텔 주인도 가끔 보고 음식 배달원들도 방에 왔지만, 무서워서 이야기하지 못했다. 6개월 동안 안 맞는 날보다 맞는 날이 더 많았다.

-가출한 게 후회되지 않나?

▲부모가 이혼하는 등 집안 환경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다. 밖에 나와 있는 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 이젠 집에 가고 싶을 뿐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전국서 10억원대 구리전선 훔쳐

친인척 절도단 7명 검거

진도경찰 5명 구속

해남·고흥 등 전국 각지에서 10억원대의 구리 전선을 훔쳐 팔아온 친인척 전문 절도단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도경찰은 4일 농어촌에 세워진 전봇대에서 상습적으로 구리전선을 훔친 이모(35·대전시 동구 신흥동)씨와 이씨의 친동생(34), 고종사촌 김모(28)씨 등 5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전선을 사들인 대전지역 고물상 송모(47)·임모(여·40)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 등은 지난 4월16일 고흥군 동일·도덕·풍양면 등 3곳 농로 전신주에서 구리 전선 1천860㎏(시가 7천450만원)을 훔치는 등 해남·고흥·영광·진도와 경남 통영 등 전국을 돌며 최근 6개월간 42차례에 걸쳐 한국전력 소유 구리전선 25t(시가 10억3천만원)을 훔쳐 팔아치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주범 이씨는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전봇대에 설치된 전선 중 전기가 흐르지 않는 구리가 비싸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11월 출소 직후 전기관련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종사촌 김씨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 친인척은 이씨 형제가 전신주에 올라 절단기로 전선을 잘라내면, 김씨 형제들이 바닥에 떨어진 전선을 차량에 싣거나 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구례 주재기자 2명 체포

업체 협박 금품 뜯은 혐의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중장비대여 업체의 불법 사실을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A신문 B(49), C신문 D(45)씨 등 구례 주재기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4월께 구례군 간전면 하천에서 박모(60)씨가 수해복구 작업을 하면서 나온 덤프트럭 20대 분량의 자연석을 군청의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을 알고 "신문에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각각 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싸이 병역비리 인정

이민영씨 검찰 조사

〈싸이〉

〈이민영〉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조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4일 가수 싸이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특례업체 근무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8시간 이상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7시께 싸이를 돌려보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가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병역특례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능력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이날 소환조사에서 "처음 회사면접 때도 프로그램 개발능력은 질문받지 않았고, 실제로도 프로그램 개발업무보다는 기획이나 프로그램 테스트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또 이날 조사에서 병역특례 근무기간에 모두 52차례에 걸쳐 공연을 한 점을 인정했다.

한편 탤런트 이찬(31)·이민영(31)씨의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도이날 이민영씨를 피해자 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12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이민영씨는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이찬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찬씨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이민영씨 측을 맞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나원참 〈7014〉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범행장소에 흔적 남긴 어설픈 도둑

쌍나팔

○…군 입대 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빈집털이를 해온 20대가 범행 장소에 흔적(?)을 남기는 바람에 들통.

○…4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0·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강모(여·37)씨의 집에 침입, 금 목걸이 등 시가 73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마당에 '징병 신체검사 결과' 서류를 빠트리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낮 주택가 등지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씨는 지난달 9일부터 7차례에 걸쳐 32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는데, "입대 전에 유흥이나 실컷 즐기기 위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

좋은사람, 좋은여행- 참좋은여행
www.verygoodtour.com
일반여행업 등록 685호 / 롯데백화점 광주점 건너편
대표번호 1588-7557
광 주 점 062)515-7600
거품없는 가격만족! 품질만족!
꿈꾸던 여행이 시작됩니다.(단체문의 환영)
광주출발 제주도 여행!!
가족을 위한 주말 1박2일 (토/일요일 출발) ₩199,000
[주중]2박3일 정기관광 ₩159,000
직장인을 위한 주말2박3일(금/토요일 출발) ₩219,000 / ₩189,000
[여름바캉스!]제주2박3일 (비양도+초호화요트투어) ₩249,000(성인) / ₩219,000(아동)
[여름바캉스!]제주랜트카자유여행3일(펜션) ₩369,000(성인) / ₩179,000(아동)
★7월27~8월5일 3만원인상
※관광호텔 2인1실 이용시 2만원이 인상됩니다
천하절경! 장가계특집 광주↔장사
6월 16일부터 ▶ 수/토요일 출발
장사/장가계 4일 ₩549,000 ▶6/20,27 7/4,11
장사/장가계/황석채/상덕 5일 ₩599,000 ▶6/16,23,30 7/7,14
장사/장가계/천문산/상덕 5일 ₩649,000 ▶6/16,23,30 7/7,14
※ 불포함사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신들의 도시 앙코르왓 광주↔씨엠립
7월 21일~8월 18일 매주 수/토요일출발(단9회)
캄보디아 앙코르왓 5일 ₩899,000 ▶7월 21 / 8월18일
캄보디아 앙코르왓 4/5일 ₩949,000 ▶7월 25 / 8월 4, 8, 15일
캄보디아 앙코르왓 4/5일 ₩979,000 ▶7월 28 / 8월1, 11일
광주출발 [노팁!] 중국/일본 (단체문의환영)
상해/장가계/항주 5일 ₩699,000
상해/항주/소주 4일 ₩349,000
상해/계림/장가계 5일 ₩709,000
[문화탐방]일본 큐슈크루즈 4일 통나무콘도 ₩279,000 ▶6/6/29 7/1,3,8
중국/일본
파격!북경/만리장성/용경협/3대기예쇼 4일 ₩229,000 ▶6/10,11,12,13,17,18,19,21,22,23~
계림/장가계/원가계/서안+진시황릉 6일 ₩699,000 ▶6/8,15,22,29
실속! 상해/황산+서해대협곡/항주 5일 ₩399,000 ▶ 6/11,12,16,18,19,23,2630 7/2,3,7
[OZ연합]중경/구채구/황룡5일(항공이동) 5일 ₩799,000 ▶6/8,15,22,29
(관서일주)오사카/나라/교토+벳부온천 4일 ₩599,000 ▶6/7,13,14,20,21,27,28 7/5,11,12
(실속특가)동경/닛코/후쿠시마온천 4일 ₩549,000 ▶6/9,10,12,13,16,17,19,21,23
동남아
[특가♥노팁!풀옵션!]방콕/파타야+전통안마2시간 5일 ₩449,000 ▶6/9,10,11,12,14,16
홍콩/발리(전일정특급호텔) 6일 ₩599,000 ▶6/8,15,22,㉙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캄보디아/앙코르왓 6일 ₩599,000 ▶6/11,12,14,16,18,19,21,23
(MEGA SALES)쿠알라룸푸르 자유여행 4일 ₩699,000 ▶6/7,8,14,15,21,22,28,29
(6월한정)코타키나바루 탄중아루 자유여행 5일 ₩699,000 ▶6/10,16,23,30
마닐라/팍상한/따가이+히든밸리 5일 ₩529,000 ▶6/13,14,15,20,21,22,27
미주/대양주
오감만족!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와이토모 10일 ₩1,590,000 ▶6/13,16,20,23,27,30
타우포송어낚시-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 11일 ₩1,490,000 ▶6/6,13,17,20,27
(NZ에어텔) 뉴질랜드에어텔+호텔3박+1개월체류 ₩1,030,000 ▶6/1~6/30
오전출발! 사이판 PIC-GOLD+씨사이드그릴 4일 ₩789,000 ▶6/9,16,23,30
(KE연합)캐나다완전일주+수상경비행기 9일 ₩2,490,000 ▶6/11
미동부+캐나다+퀘백+우드버리아울렛 10일 ₩1,990,000 ▶6/8,12,15
미서부일주+미동부일주/우드버리아울렛 12/16일 ₩2,390,000~ ▶6/15,22
유럽
핵심!서유럽4국(CX) 9일 ₩1,790,000 ▶6/15,㉒,㉙
[노팁!노옵션!]융프라우+이태리/스위스/프랑스 9일 ₩2,590,000 ▶6/12,19,26
봄의왈츠!노팁!노옵션! 동유럽5개국 9일 ₩1,990,000 ▶6/17,24,25
[찬스!특가!]스페인/포르투칼/모로코 (KL/LH) 11일 ₩2,290,000 ▶6/12,19,26
[☆품격 지중해의꽃]그리스/터키완전일주(TK) 10일 ₩1,990,000 ▶6/9,16,㉓,㉚
[특선]러시아/북유럽4국 (SU) 12일 ₩2,690,000 ▶6/9,13,16
팀장추천! 더나요!! 여름 바캉스 상품 모음
☆선예약시 5~7%할인
[노팁!풀옵션!]방콕/파타야/로얄드래곤 5일 ₩649,000 ▶7/21,22,24,㉘㉙㉚~
[실속!]푸켓/팡아만/산호섬+전통안마 5/6일 ₩849,000 ▶7/18,21,22,24,25 8/4,5,7,8,11,12
[실속!]세부+호핑투어 5/6일 ₩799,000 ▶7/22,26,㉙ 8/5,9
서안/장가계/원가계+황석채+천문산/계림 7일 ₩849,000 ▶7/23,30 8/⑥,⑬,⑳
[버스이동]성도+낙산대불/구채구+황룡 6일 ₩849,000 ▶7/26 8/2,4,9,16
[실속특가!]동경/닛코/후쿠시마온천 4일 ₩699,000 ▶7/21,22,24,25,28,29,31 8/1,4,5,7,8
[新관서일주]오사카/나라/교토/벳부온천 4일 ₩699,000 ▶7/25,26 8/1,2,8,9,15
[오감만족!]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 ▶7/21,㉕,㉘ 8/①,8,11,15,18,22
환상의피지 요트크루즈+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3일 ₩2,490,000 ▶7/19,26 8/2
[찬스특가!]스페인/포루투칼/모로코(KL/LH) 11일 ₩2,590,000 ▶7/24,31 8/7
[노팁!노옵션!]동유럽5개국 9일 ₩2,590,000 ▶7/23,24,30,31 8/2
[노팁!노옵션!]융프라우+나,폼,소+서유럽6개국 12일 ₩3,490,000 ▶7/23,26,30 8/2,6,9,13
[특선]러시아/북유럽4국 12일 ₩2,990,000 ▶7/21,28 8/4,11
[AC연합]캐나다 완전일주(실속) 8일 ₩2,590,000 ▶7/21 8/4
[사이판♣초특급!]PIC-GOLD+씨사이드그릴 5일 ₩1,149,000 ▶7/21,22,23,24,㉖,㉘,㉚,㉛~
[괌♥내가고르는 공짜옵션]PIC-GOLD+디너쇼 5일 ₩1,290,000 ▶7/20,21,22,23,24,25,㉘,㉚~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주관:참좋은여행(주) • 서울시 중구 서서문동 21-1 효성빌딩 11층 • TEL:(02)595-7000(代) / FAX:(02)599-4555 • 여행블랙리스트센터:1588-8692 • 교통편:항공 및 전용버스/전지역 • ○날짜 요금인상 • 추가경비 없음(단 개인적인 팁,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 공통여행조건:여행경비 1인기준(공항세,출국세 포함/별도 표지역 외 1급 호텔 이용, 개인팁 1일-US10$/¥1,000/10유로를 권장합니다. 식사포함, 최소 출발인원:10-15명, 해외 여행자 보험